

환상 프리킥골·45m 원더골 ... 축구로 뜨거운 지구촌

아르헨 메시, 코파 아메리카 칠레전서 선제골 ... 팀은 무승부 체코 슈크, 유로2020 스코틀랜드전 멀티골 폭발 승리 이끌어

리오넬 메시(34·FC 바르셀로나)의 프리킥 선제골을 지켜내지 못한 아르헨티나가 남미축구연맹(CONMEBOL) 2021 코파 아메리카 첫 경기에서 칠레와 무승부에 그쳤다.

아르헨티나는 15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주앙 아벨란제 경기장에서 열린 칠레와 코파 아메리카 A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1-1로 비겼다.

남미 정상을 노리는 아르헨티나는 첫 경기부터 약진이 깊은 칠레를 만나면서 승점 3을 쌓는 데 실패, 승점 1을 나눠 가지는 데 만족해야 했다.

아르헨티나는 2015년과 2016년 이 대회 결승에서 칠레에 승부차기 끝에 무릎을 꿇으며 준우승에 그친 바 있다.

전반에는 아르헨티나의 발끝이 더 매서웠다.

전반 16분 조바니 로셀소가 페널티 지역에서 뒤로 내준 패스를 니콜라스 곤살레스가 오른발로 찬 게 칠레 골키퍼 클라우디오 브라보에게 막혔다.

곤살레스는 1분 뒤에도 로셀소의 패스를 받아 슈팅을 시도했으나, 역시 브라보가 쳐냈다.

칠레는 전반 27분 헤안 메네세스가 페널티 지역 왼쪽으로 쇄도한 뒤 날린 원발 슈팅이 골대를 벗어나고 말았다.

결국 선제골은 아르헨티나에서 나왔다. 전반 33분 메시가 페널티 아크 부근에서 찬 날카로운 원발 프리킥이 브라보의 손끝을 스치며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통계 전문 업체 옵타에 따르면 메시가 A매치에서 프리킥으로 득점에 성공한 건 10672일 만이다.

메시는 이날까지 프리킥으로만 통산 57골(소속 팀 50골·A대표팀 7골)을 넣었는데, ESPN에 따르면 '라이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이 부문에서 동률을 이뤘다.

하지만 칠레는 후반 8분 에두아르도 바르가스에게 아르헨티나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에게 막혔으나, 뒤이어 쇄도하며 재차 슈팅을 시도한 아르투르 비달이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직접 키커로 나선 비달의 슈팅은 마르티네스와 골대를 연달아 맞고 빙거 나왔지만, 바르가스가 이를 머리로 밀어 넣어 동점골을 터뜨렸다.

아르헨티나는 리드를 되찾기 위해 칠레의 골문을 두드려 보지만, 추가골은 나오지 않았다.

후반 26분 메시가 페널티 아크 부근에서 찬 원발 슈팅은 브라보의 선방에 막혔고, 9분 뒤 메시의 크로스 에 이은 곤살레스의 헤딩은 골대를 살짝 넘겼다.

뒤이어 열린 경기에서는 파라과이가 10명이 싸운 볼리비아를 상대로 3-1 역전승을 거뒀다. 승점 3을 딴 파라과이는 무승부로 승점 1씩을 쌓은 아르헨티나와 칠레를 누르고 A조 1위로 올라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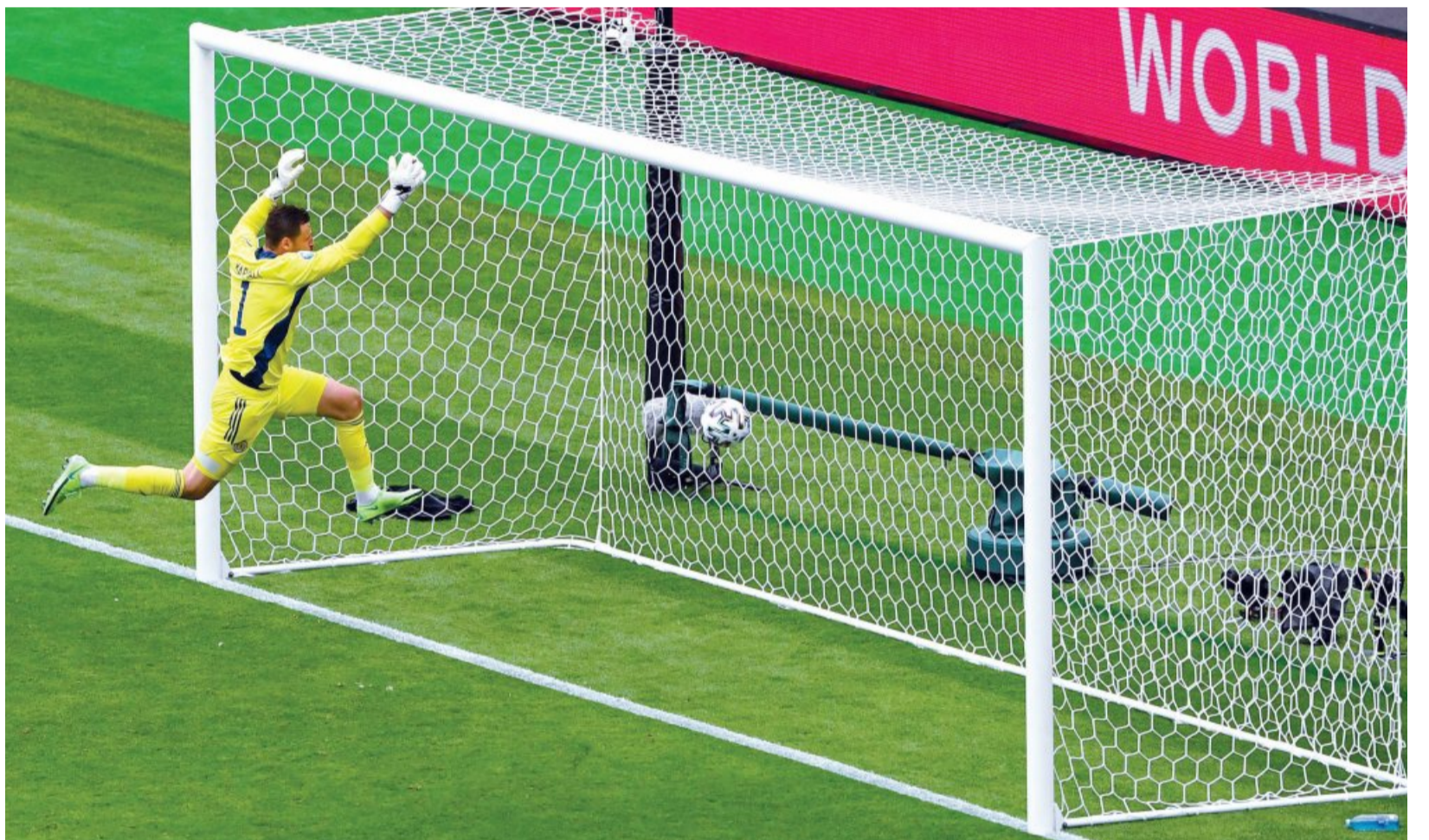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헨던파크에서 열린 유로 2020 D조 1차전 체코와 스코틀랜드의 경기에서는 체코가 파트리크 슈크(레버쿠젠)의 멀티골을 앞세워 스코틀랜드에 2-0 완승을 했다.

체코의 슈크는 후반 7분 역승 상황에서 골키퍼가 앞으로 나온 것을 보고는 하프라인을 넘자마자 과감하게 45m짜리 슈팅을 날려 추가골을 넣었다.

이는 1980년 대회 이후 가장 먼 거리에서 성공시킨 득점으로 기록됐다.



놀라운 '축구의 신' 메시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14일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닐톤 산토스에서 열린 코파 아메리카 2021 A조 1차전 칠레와의 경기에서 전반 33분 환상적인 프리킥 골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 골키퍼, 뭐하는 걸까요? 스코틀랜드 골키퍼 데이비드 마셜이 14일 글래스고 헨던파크에서 벌어진 유로2020 D조 1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7분 체코 슈크의 45m 중거리슛을 놓쳐 골을 허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US오픈 개막 ... 임성재·김시우 우승 도전

제35회 한국여자오픈도 열려

골프 팬들에게 메이저 골프 대회를 밤낮으로 원 없이 즐길 수 있는 시즌이 돌아왔다.

17일부터 나흘간 미국에서는 US오픈 골프대회가 열리고 국내에서는 같은 기간에 DB그룹 제35회 한국여자오픈이 펼쳐진다.

또 다음 주인 24일부터는 미국에서 역시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이 열리며 같은 기간 국내에서는 코오롱 제63회 한국여자오픈이 팬들을 기다린다.

2주간 한국과 미국에서 남녀 메이저 대회 4개가 연달아 명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올해로 121회째를 맞는 US오픈 골프대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토리파인스 골프 코스 남코스(파71·7652야드)에서 펼쳐진다.

만일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출전했다면 2008년 같은 장소에서 열린 US오픈 우승과 관련한 많은 이야기거리가 쏟아져 나왔겠지만 우즈는 올해 2월 차량 전복 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쳐

불참한다.

우즈가 빠진 가운데 팬들의 관심을 받는 선수로는 역시 필 미컬슨(미국)이 꼽힌다.

1970년생 미컬슨은 5월 올해 두 번째 메이저 대회로 열린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 50대 나이로 메이저 대회를 제패한 최초의 선수가 됐다.

특히 미컬슨은 4대 메이저 가운데 US오픈에서만 우승이 없어, 이 대회 정상을 오르면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할 수 있다.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US오픈 우승자는 2016년 더스틴 존슨(미국)을 시작으로 브룩스 켈카(미국)가 2017년과 2018년에 2연패를 달성했고, 2019년에는 캐리 우들랜드(미국), 지난해 대회에서는 '코스의 물리학자'로 불리는 브라이언 디샬보(미국)가 우승하는 등 장타자들이 최근 5년간 이 대회 정상을 꾸준히 지켜왔다.

한국 선수로는 임성재, 김시우, 강성훈, 이경훈이 출전하고 교포 선수 케빈 나, 존 허, 김찬, 저스틴 서(이상 미국)도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부상 병동' KIA에 반가운 비

SSG와의 시즌 6차전 취소

오늘 더블헤더 경기

최용준·이의리 선발 출전



'호랑이 군단'을 쫓아다니는 비가 전력 재정비를 위한 '단비'가 될 것인가?

1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예정됐던 KIA 타이거즈와 SSG 랜더스의 시즌 6차전이 비로 취소됐다.

이미 16일 더블헤더가 예정되어있던 만큼 취소된 경기는 추후 재편성된다. KIA와 SSG는 지난 5월 20일에도 비로 경기를 치르지 못하면서 16일 더블헤더 일정이 잡혀있다.

줄부상 속 7연전 일정을 앞두고 있었던 만큼 KIA 입장에서는 일단 반가운 비가 됐다.

KIA는 맹덴에 이어 브룩스가 팔꿈치 통증으로 빠지면서 지난 주 외국인 원투펀치 없이 선발진을 운영했다.

임기영이 4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하면서 선발진 중심을 잡았고, 이민우도 5이닝 2실

점으로 선발승을 기록하면서 선발 고민을 덜어줬다. 차명진과 윤종현은 대체 선발로 나서 테스트를 받기도 했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 버텼지만 이번 주 7경기 가 예정됐던 만큼 KIA 선발진의 썸은 복잡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15일 경기가 취소되기 전 진행됐던 인터뷰에서 "최용준을 특별엔트리로 해서 선발로 나서게 하고, 차명진은 일요일에 던지게 된다. 그 부분은 관중에게 토요일 대체선발이 필요한 상태다"며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경기를 못하게 되면 하루씩 밀어서 선발 로테이션을 돌리기에 딱 들어맞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특별 관리'를 하는 이의리를 시작으로 더블헤더까지 진행되면서 7명의 선발을 투입해야 했던 마운드 비상 상황. 윌리엄스 감독은 우천취소로 대체 선발 한 자리의 고민을 지우게 됐다.

KIA는 16일 더블헤더 1차전에서 '신예' 최용준을 투입한다.

부상공고를 줄이고 지난 2020년 KIA 2차 10라운드 선수로 프로에 뛰어난 최용준은 선발로 프로 데뷔전을 치르게 된다.

그리고 하루 밀어 이의리가 더블헤더 2차전 선발로 나선다.

이여 임기영과 김우신, 이민우가 순서대로 등판할 예정이다. 그리고 6월 9일 삼성원정에서 2년 만에 선발로 출격했던 차명진이 다시 엔트리에 등록, 20일 LG전을 책임지게 된다.

월요일이었던 14일에 이어 15일까지 이를 연속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부분도 반갑다.

KIA는 13일 더블헤더 이후 3일 만에 더블헤더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최형우와 박찬호도 부상으로 엔트리에 제외됐다. 야수진에게는 비가 준 15일 휴식이 반갑다.

하지만 들쭉날쭉한 일정에 컨디션 조절이 쉽지 않다는 점은 고민이다.

KIA는 지난 주말 사직 원정에서 비를 만났다. 11일 금요일 경기를 비로 소화하지 못했고, 더블헤더가 편성된 12일에도 비가 이어지면서 두 경기 모두 소화하지 못했다.

결국 KIA는 이를 동안 하늘을 올려본 뒤 13일 더블헤더로 두 경기를 치른 뒤 안방으로 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김우신은 11일 경기에 이어 12일 더블헤더 1차전까지 선발 출격을 준비했지만 끝내 마운드에는 오르지 못했다.

KIA가 '부상 비상' 속 비를 잘 활용해 승률 높이기엔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박찬호 너마저 ... 최형우와 함께 부상자 명단 올라



박찬호

지면 큰 문제는 없는 부상이다. 박찬호가 통증을 얼마나 느끼냐에 따라서 복귀 시점이 결정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형우의 타선 공백은 이경훈으로 채운다.

박찬호의 자리에는 김규성이 토크업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김규성과 박민이 유격수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남은 한 자리는 16일 나주환으로 채울 예정이다. 나주환은 지난 5일 엔트리에 포함돼 16일부터 재등장이 가능하다.

전날 더블헤더 특별엔트리였던 김현수와 함께 서덕원을 맡았던 KIA는 이승재로 마운드를 채웠다.

한편 맹덴보다 브룩스가 더 빨리 마운드에 복귀할 전망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맹덴보다는 브룩스가 빠른 상황이다. 오늘 개치할 했는데 통증도 없다고 한다. 룬토스와 불펜피칭에 이어 게임에서 던지는 스케줄을 잡고 있다"며 "모든 상황이 괜찮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확실하게 결과들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 맹덴은 조금 더 낫다. 투구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면서 훈련을 결정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맹덴은 5월 26일, 브룩스는 6월 4일 팔꿈치 통증으로 엔트리에 포함됐다.

맹덴은 5월 26일, 브룩스는 6월 4일 팔꿈치 통증으로 엔트리에 포함됐다.

맹덴은 5월 26일, 브룩스는 6월 4일 팔꿈치 통증으로 엔트리에 포함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